

# 중국탐방기

한무호 / 산업경제연구부장

## 1. 들어가는 말

사회체제하에 있던 중국경제는 1970년대 말 개혁·개방정책의 도입 이래 지난 20년간 연평균 9.5%의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2001년 11월 WTO에 가입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 정착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빠른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중국은 21세기 중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시아의 경제자원이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이와 같은 변화는 인접국인 한국의 경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중국의 경제대국화 및 교류의 확대는 한국에게는 커다란 기회와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한국의 대중국 상품수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의 개방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한국상품에 커다란 시장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역동성은 한국의 생산기술과 경영기법을 중국의 저렴한 임금과 지가와 결합하는데서 오는 시너지 효과와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은 한국 기업에 커다란 투자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후발 개도국인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으로 한국은 국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중국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의 해외시장의 점유율을 크게 잠식하여 한국을 경제적 넛크랙커 상황에 빠트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이 한국의 최대의 경제교류 파트너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며,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군사적·안보적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표> 중국 경제대국화의 도전과 기회 요인

기 회	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국 교류확대로 인한 시장의 확대</li> <li>• 전략적인 대중국 투자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li> <li>•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경영의 결합을 통해 제3국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li> <li>• 지경학적 위치를 활용한 중국과 제3국의 교류의 중계이득 획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시장에서 대중국 경쟁력 약화</li> <li>• 선진국과 중국의 추격으로 인한 넛크랙커 상황의 가능성</li> <li>• 대중국 투자 확대에 의한 일부 산업의 공동화</li> <li>• 대중국 경제의존도의 심화 가능성</li> </ul>

중국은 시장경제에 적응하면서 21세기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1978년 개혁·개방정책 추진이래 산업정책을 일반적 산업정책과 산업별 산업정책으로 구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해의 포동지구를 중심으로 한 장강델타지역, 중관촌을 중심으로 한 북경지역, 심천을 중심으로 한 주강델타지역을 첨단산업의 3개의 축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커다란 시장이 주는 기회와 경쟁자로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 우리의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중국경제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급성장하는 중국경제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중국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상해의 포동지구와 북경의 중관촌을 방문하고 보고 느낀 지역의 현황과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표> 중국 첨단산업 발전의 3개축

구 분	장강델타지역	북경지역	주강델타지역
위 치	• 중부 • 상해, 강소성	• 북부 • 천진산업기지와 연계	• 남부 • 심천, 동관, 순덕
발전 시기	• 90년 국가급 개발구지정 (상해 포동지구)	• 88년 최초의 첨단기술 개발구 지정(중관촌)	• 80년 최초의 특구 지정으로 개방
산업 특징	• 종합적 하이테크 단지 • IT, 반도체, 금융	• 연구개발단지 • 연구인력집중	• IT산업기지 • 컴퓨터, 전자제품 • 인프라와 시장경험

## 2. 중국경제의 현황

중국의 인구는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1998년 현재 12억 4,900만명이라고 하나 인구억제를 위한 산아정책으로 벌금을 피하기 위해 호적에 올리지 못한 흑인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16억 명에 이른다고 한다. 영토의 면적은 9백60만 평방킬로미터로 우리나라의 99배나 되는 광활한 국토와 절경을 이루는 산수를 비롯해 56개 소수민족의 음식, 의상, 풍습과 오랜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이러한 방대한 내수시장, 저렴한 인건비, 풍부한 인력공급 등 장기적으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싱가포르식 “현인(賢人)독제” 모델을 추구하여 사회주의체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각종 인센티브 및 일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기업에게 정치적 비용이나 개발비용을 낮춰줌으로써 기업환경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 결과로 중국은 2000년 현재 8.0%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여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속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1995~1999년 사이 수출입의 각각 1,488억 달러와 1,321억 달러에서 1999년에는 1,949억달러와 1,657억 달러에 이르러 5년 동안 1,421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여 1999년 현재 1,547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다.

물론 현재로는 중국이 R&D 기반 및 기술축적의 미흡, 인재육성을 위한 양호한 환경요인 부족으로 IT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조가 취약하고, 중국제품의 경쟁력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의 관건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 안정성과 거점개발정책으로 몇 개의 큰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민의식의 저개발국가 수준인데 급격한 경제환경변화에 이들이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화교상권과 네트워크가 형성될 경우 중국의 경제력은 엄청나게 증대될 것이고,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개발초기에는 정책의 일관성, 실천성, 신속성으로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거대한 내수시장의 존재는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중국은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와튼경제예측연구소(WEFA)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향후 5년간 7.6%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무역수지도 매년 400억달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최근 중국경제의 동향

구분	단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9)
실질GDP성장률	%	10.5	9.7	8.8	7.8	7.1	8.2
소비자물가상승률	%	17.1	8.3	2.8	-0.8	-1.4	0.2
수출	억달러	1488	1511	1827	1838	1949	1823
수입	"	1321	1388	1424	1402	1657	1631
무역수지	"	167	123	403	436	292	192
외환보유고	"	736	1050	1399	1450	1547	1601
FDI	"	375	417	452	455	403	314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표> 향후 중국경제의 전망

(단위 :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GDP증가율	7.7	7.5	7.6	7.7	7.7
무역수지(10억달러)	40.7	39.9	41.2	43.7	44.3
경상수지(10억달러)	20.9	18.0	17.7	18.8	18.5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2000

우리는 중국을 단순히 거대한 인구의 소비시장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생산 및 소비시장으로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가 중국의 추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길 뿐이라고 판단된다.

## 2. 상해 포동지구

### 1) 위치

상해시는 북경, 천진, 중경과 더불어 4대 직할시의 하나,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상업, 무역, 금융의 도시이다. 1842년 아편전쟁이 끝난 후 맺은 남경(南京)조약에서 상해항은 서양 열강들에 의해 개항되어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조계지가 설치되었으며, 이후 상해는 조계지에 중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서구 열강이 동아시아에 진출하는 거점도시가 되었다.

1945년 2차대전이 종결된 후 외국 조계지가 철폐되고 1949년 중국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후, 동아시아 최대 도시의 명성은 일본의 동경(東京)에 넘겨주고, 최대 무역항으로서의 위치도 영국 조차지인 홍콩에 물려주었다. 그렇지만 상해는 중국 최대의 공업도시, 무역도시로서 북경(北京) 천진(天津)과 함께 중앙직할시로 지정될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다.

현재 상해시는 중국의 큰 도시로서 중앙직할시에 소속되어 있다. 중국 대륙해안의 중부와, 장강(長江)과 바다가 접하는 부분에 위치해있다. 상해시의 면적은 0.63만km<sup>2</sup>이고 인구는 1,356만 명이며 16개의 구와 4개의 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해를 가로지르는 황포강(黃浦江)은 하류에서 양자강에 합류하여 서해로 들어간다. 이 황포강의 서쪽은 옛 시가지가 되고 동쪽은 1990년대에 들어 새로 개발한 이른바 포동(浦東)지구이다.

포동지구의 황포강에는 무역 선박이 드나들며 화물을 운송하고 최근에는 커다란 국제공항이 건설되어 세계와 연결되고 있다. 포동지구에는 새로 건설된 도시인만큼 십여차선은 뒹직한 쪽쪽 뻗은 도로와 수십층짜리 빌딩이 즐비하다. 그 중에서도 상해인이 가장 자랑하는 것은 동방명주탑(東方明珠塔)이며, 높이 468미터로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탑이라고 한다. 버스에서 내려 동방명주탑을 사진 찍으려니 디지털카메라로는 모두 잡히지 않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6미터에 있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상해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 2) 개발추진 역사

포동지구에 대한 개발구상은 일찍이 손문의 건국방략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1984년 상해시측이 국무원에 상해경제발전책략보고안?보제망을 제출함으로써 중국정부에 의해 포동지역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8년 당시 상해시 공산당서기로 있던

강택민과 상해 시장직을 맡고 있던 주용기 총리에 의해 포동개발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면서 대외적으로 공개되었고, 1990년 4월 1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와 국무원은 포동지구에 대해 경제특구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자금 및 정책적 지원을 결정하였다.

1993년 1월 1일 상해시 조계정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포동신구관리위원회가 정식 설립되어 동위원회 산하에 10여부서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되었다. 1990~1995년까지 250억 RMB를 투자하여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였으며, 1996~2000년 말까지 총공사비 1,000억 RMB를 투입 여객 2천만명과 75만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포동국제공항, 포서의; 중앙공원에서 포동 장강고과기원구까지 전장 19.5km의 지하철 2호선, 포동정보센터, 심수컨테이너전용부두, 포동전철공사 등 제2기 10대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였다.

종합적으로 포동지구는 3단계의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제1단계(1991~1995)는 개발초기 단계로서 4개의 개발구를 중점 개발하여 중국인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제2단계(1996~2000)는 중점개발단계로 사회간접자본을 세속 확충하여 비교적 완비된 일차적 포동지구를 형성하고, 제3단계(2001~2010)는 전면적 개발단계로 외향적 경제를 중심으로 현대화된 공업기지와 금융, 무역, 과학기술정보의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연 도	내 용	비 고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동지구 중점개발 기준</li> <li>• 포동지구내 3대 개발구 공사 성립</li> </ul>	
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포대교 개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투자액 : 8.2억원</li> <li>• 길 이 : 8.364km</li> </ul>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고교개발구에 보세구 운영개시</li> <li>• 장강 고기술 개발구 설립</li> </ul>	
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동신구 관리위원회 성립</li> <li>• 양포대교 개통</li> </ul>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방명주탑 완공</li> <li>• 金茂大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해 상징물(468m)</li> <li>• 중국 최고 높이 건물</li> </ul>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上海信息港 프로젝트 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사업</li> </ul>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해시 지하철 2호선 공정 개시</li> <li>• 생물·의약 과학기술 산업기지 결정</li> <li>• 중국과 외국회사간 합자회사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우와 선경이 중국업체와 합자회사 설립</li> </ul>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티은행의 상해분행이 인민페 영업 시작</li> <li>• 포동국제공항 착공</li> <li>• 「상해포동 소프트웨어」 단지를 장강고 기술개발구에 건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해 GM자동차공사 금교개발구에 설립</li> <li>• NEC 전자공사가 金橋輸出工團에 설립</li> </ul>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해 국제회의센터 완공</li> <li>• 장강고기술개발구에 기술혁신 프로젝트 개시</li> </ul>	



### 3) 浦東地區 開發의 主要成果

상해시내 중심가인 와이탄과 남경로와는 황포강을 사이에 두고 최대 오지로 버려졌던 522km<sup>2</sup>의 포동지역은 홍콩을 능가하는 금융시장 건설이라는 중국의 21세기 야망을 갖고 개발한다는 청사진 아래 개발 10년을 맞은 지금은 금융과 벤처기술이 모인 황금지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90년 연해개방도시인 상해에 특구를 능가하는 포동개발계획을 발표했던 상해시는 최근 정보통신이 금융을 앞서나가자 재빨리 첨단정보산업 육성에 뛰어들었다. 상해를 정보화에서도 중심향으로 육성한다는 프로그램아래 벤처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육성책을 내놓고 있다. 현재 100여개의 금융기관과 254개 다국적기업이 둥지를 틀고 있는 이곳 400여동의 고층빌딩에는 하루가 다르게 인터넷 등 벤처기업들이 속속 합세하고 있다.

양포대교, 남포대교, 연안동로해저터널, 양고로, 내환선 등 도시도로망 건설되고, 외고교 발전소, 능교수력발전소, 포동가스공장, 통신시설, 환경보호시설, 항구 등 기간투자 확대로 투자 환경이 개선되어 현대적인 도시면모 형성하였고, 포동국제공항, 지하철 2호선, 포동신식항, 심수항만, 외환선, 세기대도, 황포강관광해저터널, 동해천연가스 등 10대 기간시설 건설사업이 완성 되면 다가오는 21세기 세계 최대의 잠재시장인 중국진출의 창구로서 홍콩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동경을 능가하는 아시아 최고의 금융무역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아시아의 금융위기 동안에도 기간산업, 신기술, 금융·무역의 우선 발전전략과 국내 외시장의 자원·자금의 충분한 이용으로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하며, 고도의 성장을 유지하였다. 상해시 GDP 중 포동지구의 비중이 1990년 8.1%에서 1999년 20%로 상승하였고, 해외개방으로 외자유치 확대하여 1999년 12월말 현재 69개 국가 및 지역에서 5,972건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성공하였다.

금융·무역분야에서도 1999년말 현재 78개의 외국금융기관이 포동에 설립되었으며, 상해시 정부는 시내 10대 생산요소 시장을 포동지구로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현재 산업기술거래소, 국

물 및 원유 등의 선물거래소, 부동산거래센터, 증권거래소 및 인재시장이 포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표> 5대 중점개발구 성과

구 분	내 용
陸家嘴금융무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200여개 이상의 대형건물이 완공 또는 건설 중이며, 외국금융기관과 대형 생산요소 시장이 입주</li> <li>• 중국업체와 외자업체의 본부가 입주하여 자본, 정보, 기술, 인재 및 물류·유통의 중심지로 부상</li> </ul>
金橋수출가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및 부품, 전자정보, 현대통신, 가전제품, 생물의약 등 기간산업 분야에 대한 외자유치에 중점 노력 총 340건의 투자를 유치</li> </ul>
外高橋 보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세구에는 3,900여개의 외국기업이 48억불을 투자하였으며, 연간 화물처리량은 770만톤이며, 매년 92만개의 컨테이너를 처리</li> <li>• 상해시의 삼항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보세구내에 심수항 건설 1·2기 공정 완료</li> </ul>
張江高新기술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의약, 정보산업 및 기술혁신을 위한 주요 기지로 육성</li> <li>• 현재 50여건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개발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li> </ul>
合慶공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동신구에서 가장 저렴한 지가와 임금으로 양질의 노동생산성 가능</li> <li>• 포동신공항 및 지하철2호선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 합경정부와 공업구주임이 한국업체 유치에 적극적</li> </ul>

### 3. 北京 中關村

#### 1) 개요

북경은 3천년 역사를 가진 중국의 수도이며, 중국 6대 수도의 하나이며,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며, 인구는 1,200만명이며, 만리장성, 자금성, 이화원등 수많은 역사의 유적지를 갖고 있는 중국 제일의 관광도시이다.

중관촌은 北京 북서쪽 海淀區에 위치하고, 지난 88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첨단기술개발구로 지정되었으며 지금은 100km<sup>2</sup>의 광활한 지역에 7,000여개 크고 작은 업체들이 들어서 있다. 지역 내에는 北京大學·清華大學 등 73개의 대학들과 中國科學院 등 230여개의 연구소들이 산재되어 있고, 4,500여개의 첨단과학기술 관련기업들과 10만명에 달하는 기술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중국 최고의 첨단과학기술 단지이다.

특히 「렌상」(聯想)·「팡정」(方正)·「쓰통」(四通) 등 중국의 대표적 IT 업체들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등 IT 관련기업들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 IT 산업의 요람으로 불린다. 중관촌이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게 된 요인은 대표적인 IT업체인 연상(聯想)과 북대방정(北大方正)의 성공으로 꼽히고 있다. 또 중화망(中華網, china.com)에 이어 나스닥 등록이 유력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신랑(新浪, sina.com.cn), 망이(網易, netease.com), 서호(搜狐, sohu.com)의 성공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게 이들의 평가다.

中關村(海澱園) 지역의 99년 GDP는 北京市 전체 GDP의 8.37%, 공업생산액의 22.5%를 차지했을 정도로 막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기업의 숫자·매출액 등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관촌의 「테크노마트」라고 할 수 있는 해룡전자성(海龍電子城)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진(黃進)씨는 중관촌 상가를 찾는 방문객이 하루에 적어도 100만명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미국 실리콘밸리로 유학을 떠났던 최고급 두뇌들의 대거 귀국, 중관촌의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에서 귀국해 중관촌에서 창업에 나섰거나 IT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은 약 1,000여명. 실리콘밸리의 중국계 기술인력이 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짐작할 수 있다.

## 2) 개발추진 역사

중국정부는 中關村 지역을 21세기 중국의 첨단과학기술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중국 정보통신산업의 핵심기지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과 함께 앞으로 10년 동안 2,000億元(26조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同 지역에 등록된 중국·외국 첨단과학기술 관련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同 지역의 기업들은 진출 첫해부터 3년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도 중국의 일반세율인 30%의 1/4~1/2 정도만 납부하면 되는 세금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同 지역의 첨단과학기술 관련 기업들은 25%의 부동산 임대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중국정부는 IT 산업의 필수조건인 원활한 데이터통신망 제공을 위해 中關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회선을 확보, 同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에게 일반 임대료보다 25%~30%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同 지역의 기업들에게 중국의 폐쇄적 호구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北京이 아닌 다른 지방의 기술인력들이 이곳 기업에서 일할 경우, 합법적인 거주권을 인정해준다.

同 지역의 기업들 중 200만달러 이상의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수출경영권'을 부여하고, 중국 정부는 IT 분야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각종 인프라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관촌 외곽에 자리한 上地정보산업단지 조성은 이런 노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 단지에는 현재 聯想, 北大方正 등 중국의 내노라하는 업체를 비롯 미국의 IBM, GE, 일본의 미쓰비시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과학기술 관련 기업들이 上記 우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中關村 科技園區 管理委員會에 기업등록을 해야하며, 이 경우 신청 기업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기술 증명(특허 등)을 제출해야 하고, 기업구성 인원들 중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고급인력이 1/3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매출액의 3%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管理委員會 측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中關村 管理委員會에서는 등록기업들이 이러한 조건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사업허가증 발급 이후 1~2년이 지나면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전용 데이터 통신망을 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업허가증을 발급하고, 기업들이 사업내용을 확장·변화시킬 때 반드시 管理委員會에 상세히 신고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조치들은 정부에서 기술전반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연 도	내 용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정부는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장기전략의 일환으로 중관촌을 제1호 첨단기술개발구로 지정</li> <li>• 지역내에 73개 대학들과 중국과학원 등 230여개의 연구소가 밀집</li> </ul>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관촌 과기원구를 설립하여 하이테크파크 건설, 인프라정비 및 해외의 중국인 유학생과 기술자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정비와 벤처기업들을 지원</li> </ul>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말 현재 중관촌에는 8,224개의 기술계 기업이 등록</li> </ul>



### 3) 主要成果

중관촌에는 聯想, 方正, 四通 등 중국의 대표적 IT 업체들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IT 관련기업들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 IT 산업의 요람으로 불리며, 中關村 지역의

99년 GDP는 北京市 전체 GDP의 8.37%, 공업생산액의 22.5%를 차지했을 정도로 막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기업의 숫자·매출액 등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관촌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864억원(11조2,300억원)에 달하여 초창기인 10년 전에 비해 무려 50배나 늘었고, 오는 2010년에는 6,000억원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실리콘밸리로 유학을 떠났던 최고급 두뇌들의 대거 귀국, 중관촌의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미국에서 귀국해 중관촌에서 창업에 나섰거나 IT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은 약 1,000여명에 달하고, 실리콘밸리의 중국계 기술인력이 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매우 크다.

#### 4. 맺음말

중국의 인구는 통계상으로 13억이라고 하나 인구억제를 위한 산아정책으로 벌금을 피하기 위해 호적에 올리지 못한 “黑人”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16억에 달한다. 최근 중국은 이러한 방대한 내수시장, 저렴한 인건비, 풍부한 인력공급 등 장기적으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싱가포르식 “현인(賢人)독재” 모델을 추구하여 사회주의체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각종 인센티브 및 일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기업에게 정치적 비용이나 개발비용을 낮춰줌으로써 기업환경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가고 있고, 실제로 포동지구에는 세계 500대 기업 중 유수한 70대 기업들이 입주하였으며, 제조업은 대부분 IT산업관련 기업들이고, 78개의 외국금융이 설립되었고, 또한 중국정부는 산업구조조정과 고도화에 유리한 신기술 및 하이테크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첨단과학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장기전략을 수립 중관촌과 같은 첨단기술개발구를 적극 개발하고 있다.

현재로는 중국이 R&D 기반 및 기술축적의 미흡, 인재육성을 위한 양호한 환경요인 부족으로 IT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조가 취약하고, 중국제품의 경쟁력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으나 북경 중관촌의 경우 북경대학, 청화대학을 포함한 70여개의 대학으로부터 매년 학부학생 3만여명, 대학원생 6,000여명이 배출되고 있으며 중국과학원을 필두로 하여 213개소의 연구기관, 8만명의 국가급 연구원, 30만명이 넘는 과학기술관련 인력이 밀집되어 있고, 미국 실리콘밸리로 유학을 떠난 최고급 두뇌들이 대거 귀국하고 있다.

또 하나의 인상깊었던 점은 대도시의 인구집중 방지를 위한 국가정책이었다. 중국은 인구억제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규제정책을 경제적 비용과 연관시키고 있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보아야 할 점이다.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을 제외하고는 아이를 하나 이상 낳을 때는 정부에 상당한 세금을 내야하고, 타 지역에서 북경시로 이주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정부에 지불해야 하

는데 이는 북경시의 개발에 대한 재원마련과 동시에 북경시로의 인구집중을 방지하는 효과를 추구하고 있으며, 시내의 차량공급량은 정부에서 정책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수요자가 많은 경우는 번호판을 경매에 부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화교상권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것이 성공할 경우 중국의 경제력은 엄청나게 증대될 것이고,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개발초기에는 정책의 일관성, 실천성, 신속성으로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거대한 내수시장의 존재는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중국은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의 관건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 안정성과 거점개발정책으로 몇 개의 큰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민의식의 저개발국가 수준인데 급격한 경제환경변화에 이들이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중국을 단순히 거대한 인구의 소비시장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생산 및 소비시장으로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가 중국의 추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길 뿐이라고 판단된다.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커다란 시장이 주는 기회와 경쟁자로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 우리의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중국경제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